

다양한 숲



시코츠(支笏) 호반에 펼쳐진 혼효림

시코츠 칼데라 외륜산의 숲

시코츠호(支笏湖)를 둘러싸고 있는 산지는 풍부한 삼림으로 덮여있다. 호안의 저지대에서는 가문비나무·분비나무 등의 침엽수에 물참나무, 느릅나무 등이 섞인 혼효림이 우점하고, 상부에서는 침엽수림으로 전이가 진행되고 있다.

분화가 빨리 끝난 혼푸시산(風不死岳)은 가문비나무·분비나무 등의 짙은 녹색으로 덮여있지만, 17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분화 활동이 계속 되고 있는 타루마에산(樽前山)은 삼림이 표고 약 600m 이하에만 존재한다.

이른 봄의 임상식물

겨울이 긴 혼카이도에서는 봄이 단숨에 찾아온다. 눈이 사라지는 것을 기다릴 수 없는 듯, 식물들은 일제히 눈을 뜬다. 「봄식물」이라고 불리는 초화류는 나뭇잎이 나오는 것 보다 빠르게 밝은 숲에서부터 차례차례로 꽃을 피우고 종자를 맺는데, 나뭇잎이 트고 숲속이 어두워지는 시기가 되면 서서히 지상부에서는 사라져 간다. 영어에서 spring ephemeral이라는 말이 있는데 봄의 덧없음을 의미한다. 성장기간이 짧은 봄식물은 씩이 나와 꽃이 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많다. 얼레지는 8년, 연영초는 십수년이 걸린다.

비후에의 거목의 숲

시코츠호 주변의 숲은 1954년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호수 서안의 비후에 주변에는 지금도 느릅나무, 계수나무, 물참나무, 일본피나무, 음나무 등 활엽수 거목이 많아 「거목의 숲」으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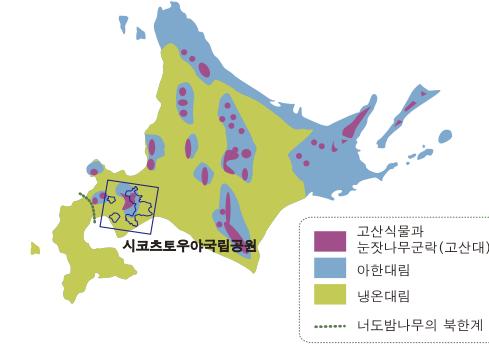


1 웨현호색
2 얼레지
3 연령초
4 한리바람꽃
5 맹합과연령초속 식물
6 복수초

남과 북의 삼림이 혼합된 혼카이도

혼카이도에서는 남부의 오시마(渡島) 반도까지는 혼슈(本州) 이남에 넓게 분포하는 너도밤나무 숲을 볼 수 있다. 이보다 북쪽에서는 너도밤나무 숲은 없어지지만, 저지대에는 느릅나무, 일본피나무, 계수나무, 자작나무류 등 혼슈와 공통되는 많은 활엽수와 혼슈에는 없는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등의 침엽수가 생육하는 혼효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혼카이도가 기후적으로 냉온대와 아한대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양쪽 삼림의 식물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있다. 이러한 삼림의 구성은 혼슈의 삼림보다 오히려 북아메리카 동부나 연해주의 삼림과 닮은 점이 있다.

혼카이도의 삼림타입



이끼의 동굴

혼푸시산(風不死岳)의 서쪽 산기슭에 있다. 타루마에산(樽前山)에서 흘러나온 화산암의 갈라진 틈이 침식되어 만들어진 좁은 골짜기로 깊이 최대 약 10m, 폭 3m, 연장 약 400m이다. 양측의 암벽에는 새우이끼, 망울이끼 등 약 30 종류의 이끼가 일생하고 있다. 이는 온도와 습도, 일조 조건 등이 이끼의 생육에 적합하였기에 생성된 것이지만,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봉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짜기의 내부에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입구 관광대에서 견학이 가능하다.

칼럼

우스산(有珠山) 분화에 의한 자연파괴와 재생

화산의 분화는 주변 삼림에 큰 영향을 준다. 화산재나 경석이 쌓이거나, 화산쇄설류에 말려들어간 곳은 수목이 고사해 버린다. 화구 부근은 지온이 높아지므로 피해가 한층 더 커진다. 식생의 회복은 지온이 떨어진 후, 풀이나 이끼가 자라나는 것으로 시작되며, 천이가 진행되어 삼림이 다시 재생되ика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편, 화구에서 떨어져 있어 분출물이 적게 쌓인 곳의 식물은 자력으로 다시 씩을 틔우며 삼림은 비교적 단시간에 원래와 가까운 상태로 돌아온다.



타루마에산(樽前山)(상)과 혼푸시산(風不死岳)(하)의 식생
화산활동이 일찍이 끝나 산정부까지 삼림으로 덮여있는 혼푸시산(風不死岳)

현재 타루마에산(樽前山)과 우스산의 주변에서는 분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회복의 단계가 다양한 삼림을 볼 수 있다.